



즉시 배포용: 2019 년 5 월 2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그레이프 투 스쿨(GRAPE-TO-SCHOOL) 파일럿 프로그램 발표**

**10 개의 학교가 뉴욕주 생산 및 인증(NYS Grown & Certified)을 받은 콩코드 포도 주스를 학교 식당 메뉴에 추가하고 교육적 활동 및 미각 테스트 제공**

**콩코드 포도 산업을 위해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고 새로운 메뉴 개발을 장려하겠다는 콩코드 포도 서밋(Concord Grape Summit)에서 결정한 목표 이행**

**주지사의 팜 투 스쿨(Farm-to-School) 및 노 스투던트 고스 헝그리(No Student Goes Hungry) 이니셔티브에 기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그레이프 투 스쿨(Grape-to-School) 파일럿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팜 투 스쿨(Farm-to-School)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교육구 및 협력 교육 서비스 이사회(Boards of Cooperative Educational Services, BOCES) 프로그램의 학생들에게 뉴욕주에서 생산된 콩코드 포도 주스를 소개합니다. 올해 교육 연도 말까지 10 개 지역구가 뉴욕주 생산 및 인증(NYS Grown & Certified) 콩코드 포도 주스를 메뉴에 추가할 것입니다. 또한 참여 지역에서는 교육 활동 및 미각 테스트를 실시하여 뉴욕의 농업을 홍보하고, 학교 식당 메뉴에 지역 생산물 사용을 확대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초로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영양가 높은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콩코드 포도를 주 전역의 학생들에게 제공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뉴욕의 농업 산업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이니셔티브에 따라, 우리는 주 전역에서 영양가 높은 학교 식당 메뉴를 채택하고 최고급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지역의 농부들을 지원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콩코드 포도는 뉴욕주의 다양한 농업 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년 처음으로 열린 콩코드 포도 서밋(Concord Grape Summit)에서 제가 강조했듯이, 우리는 주 전역의 포도 산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이프 투 스쿨 파일럿 프로그램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여, 학교에 콩코드 포도 메뉴를 추가하고 제품 개발을 장려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시작 확대와 새로운 기회의 모색, 뉴욕 농업 경제의 강화를 돕습니다."

오늘 오전, 팜 투 스쿨(Farm-to-School) 파트너들은 햄버그의 아모 초등학교(Armor Elementary School)에서 뉴욕 목요일(NY Thursdays) 지역 생산품 점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석해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K-5 학급의 학생들은 100 퍼센트 지역 생산물을 사용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에 쓰인 식재료는 뉴욕 주스 컴퍼니(New York Juice Company)의 뉴욕주 생산 및 인증(NYS Grown & Certified) 콩코드 포도 주스 컵, 슬레이트 푸드(Slate Foods)의 뉴욕주 생산 및 인증(NYS Grown & Certified) 소고기 핫도그, 마르퀴트 농장(Marquart Farms)의 뉴욕 칩스(New York chips), 지네스 밸리 빈 컴퍼니(Genesee Valley Bean Company)의 밴디트 빈스(Bandit Beans), 업스테이트 팜스(Upstate Farms)의 뉴욕주 생산 및 인증(NYS Grown & Certified) 우유 등입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 NYSDAM)는 뉴욕주의 협력 이니셔티브인 팜 투 인스티튜션(Farm-to-Institution)을 통해 아메리칸 팜랜드 트러스트(American Farmland Trust)와 파트너십을 맺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웨스트필드 메이드 코오퍼레이티브(Westfield Maid Cooperative)와 롱아일랜드 기반의 음료 제조업자 뉴욕 주스 컴퍼니(New York Juice Company)가 함께 콩코드 주스가 담긴 주스 컵을 생산 및 포장합니다.

그레이프 투 스쿨(Grape-to-School)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더치스 카운티, 비컨 시, 비컨 센트럴 교육구
- 이리 카운티, 버펄로 시, 버펄로 공립 학교
- 이리 카운티, 햄버그 타운, 햄버그 센트럴 교육구
- 브룸 카운티, 메인 엔드웰 센트럴 교육구
- 오네이다, 허키머, 매디슨 카운티, 오네이다-허키머-매디슨 협력 교육 서비스 이사회(Boards of Cooperative Educational Services, BOCES)
- 퀸즈, 르네상스 차터 학교
- 쇼하리 카운티, 쇼하리 타운, 쇼하리 센트럴 교육구
- 델라웨어 카운티, 시드니 타운, 시드니 센트럴 교육구
- 오네이다 카운티, 화이트보로 빌리지, 화이트보로 센트럴 교육구
- 브룸 카운티, 윈저 타운, 윈저 센트럴 교육구

뉴욕 주스 컴퍼니(New York Juice Company)와 뉴욕주 최초의 뉴욕주 생산 및 인증(NYS Grown & Certified) 주스 생산 업체인 웨스트필드 메이드(Westfield Maid)는 주 전역에서 추가로 65 개 이상의 지역에 콩코드 포도 주스가 담긴 주스 컵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스의 구매로 인해 학교는 메뉴 식재료 중 30 퍼센트를 지역 생산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여 높은 점심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4 온스의 주스 컵에는 새로운 맛인 "자라나는 포도(Growing Grape)" 제품이 담깁니다. 뉴욕주 생산 및 인증(NYS Grown & Certified) 썰이 모든 주스 컵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져 있어, 소비자들은 뉴욕의 농부들이 재배한 포도로 주스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뉴욕의 농부들은 높은 식품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며 환경의 측면에서도 철저함을 보여줍니다.

**Richard A. Ball** 농업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뉴욕주 농업과 식음료 산업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뉴욕산 콩코드 포도를 학생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뉴욕의 콩코드 포도 생산은 전국 2 위입니다. 그리고 이 과일릿 프로그램은 우리의 학생들에게 식재료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 알려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농업 경제에서 콩코드 포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여 우리의 생산자와 새로운 고객을 연결해줄 수 있습니다."

상원 농업 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의 위원장인 **Jen Metzg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팜 투 스쿨 프로그램의 열렬한 지지자로서, 저는 이 과일릿 프로그램으로 인해 뉴욕산 콩코드 포도 주스가 뉴욕 전역의 학교에 공급된다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료를 제공하고 뉴욕의 농장 및 농부들을 지원한다는 이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 농업위원회(Assembly Agriculture Committee)의 **Donna Lupardo**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레이프 투 스쿨(Grape-to-School) 과일릿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팜 투 스쿨(Farm-to-School) 기획의 자연스러운 연장입니다. 이곳 브룸 카운티를 비롯해 주 전역의 학생들이 뉴욕 생산 및 인증(New York Grown & Certified) 포도 주스를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학생들은 뉴욕의 콩코드 포도 생산량이 전국 2 위라는 것을 배우는 한편, 영양가가 높고 지역에서 조달된 상품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의 콩코드 포도 산업을 위해 새로운 시장과 제품을 찾겠다는 계속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아메리칸 팜랜드 트러스트(American Farmland Trust) **Erica Goodman** 뉴욕주 부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메리칸 팜랜드 트러스트(American Farmland Trust)는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와 협력하여 뉴욕주의 K-12 학교에 콩코드 포도 주스를 공급하여 뉴욕의 포도 생산자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학교를 교육하고 학교에 뉴욕산 식품을 더 많이 조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식품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역 경제에 투입하여 뉴욕의 농부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햄버그 학교의 식품 및 영양(Food and Nutrition) 행정책임자인 **Anne Rich**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맛 좋은 뉴욕주 제품을 우리 학생들에게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많은 경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과 건강한 식품 간의 균형을 맞추고, 아동

영양 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뉴욕주 콩코드 포도 주스(NYS Concord Grape juice)는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바로 그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레이프 투 스쿨(Grape-to-School) 프로그램은 주 전역의 아동 영양 프로그램이 Cuomo 주지사의 노 스튜던트 고스 형그리 이니셔티브(No Student Goes Hungry Initiative)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처럼 훌륭한 팜 투 스쿨(Farm-To-School) 프로그램은 학생, 아동 영양 프로그램, 유통업자, 생산자, 뉴욕주 농부 등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레이프 투 스쿨(Grape-To-School)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뉴욕 주스 컴퍼니(New York Juice Company)의 Mike Puntillo**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NYS DAM), 웨스트필드 메이드 코오퍼레이티브(Westfield Maid Cooperative), 아메리칸 팜랜드 트러스트(American Farmland Trust)와 협력하여 생산 및 인증(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어 기쁩니다. 우리의 미션은 건강한 원료로 만든 지역 생산품을 생산하여 경쟁적인 시장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생산 및 인증(Grown & Certified program) 프로그램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포도 생산자와 식품 서비스 행정책임자, 그리고 우리의 유통 업체인 시스코 푸드(Sysco Foods)에 감사드립니다. 뉴욕 주스 컴퍼니(New York Juice Company)는 계속 고품질 원재료, 안전한 패키징, 지역 원료로 만든 주스로 만든 주스를 뉴욕주 및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게 공급할 것입니다."

**웨스트필드 메이드 코오퍼레이티브(Westfield Maid Cooperative)의 Andy Putnam** 세일즈 리드 겸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트필드 메이드 코오퍼레이티브(Westfield Maid Cooperative)는 우리의 뉴욕주 생산 및 인증(NYS Grown & Certified) 콩코드 포도 주스를 학교 점심 메뉴에 추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뉴욕주의 지원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작년 웨스트필드의 콩코드 포도 서밋(Concord grape summit)에서 처음으로 논의하였듯이,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뉴욕주 생산 및 인증(NYS Grown & Certified) 농장 생산품을 공급하여, 식품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이러한 상품과 이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대체품 간의 품질 차이에 대해 알려주며 뉴욕주 전체에 최고의 경제적 이익을 장려하는 일은 뉴욕주 학교에게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뉴욕주의 모든 K-12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콩코드 포도 주스를 맛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기쁩니다. 콩코드 포도 주스는 말 그대로 레이크 이리 콩코드 포도 재배지 바로 공급됩니다. 이 팜 투 스쿨(Farm-to-School) 이니셔티브는 위대한 우리 뉴욕주에서 매우 중요하고 아름다운 농업 지역을 계속 보호할 수 있는 정말 차별화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레이프 투 스쿨(Grape-to-School) 파일럿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팜 투 스쿨(Farm-to-School) 프로그램과 주지사의 노 차일드 고스 형그리 이니셔티브(No Child Goes Hungry Initiative)를 비롯해, 테이스트 뉴욕(Taste Ny)과 뉴욕주 생산 및 인증(NYS Grown & Certified) 등 뉴욕주 전역에서 지역 식음료의 판매를 장려하고자 추진 중인 기타 정책의 일환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2018년 뉴욕주의 콩코드 포도 서밋(Concord Grape Summit)의 목표를 수행합니다. 콩코드 포도 서밋은 뉴욕의 콩코드 포도 산업을 위해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콩코드 포도 신제품 개발을 장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콩코드 포도 서밋의 결과, 이 농업 부문에서 농장 및 사업체를 위한 기회의 확대를 위해 이러한 새로운 마케팅 시도를 포함한 몇몇 혁신적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무병해주를 보장하기 위한 포도 인증 프로그램(Vine Certification Program) 지원, 콩코드를 사용한 새로운 식품 과학 연구개발 지원, 수출 기회에 대한 워크숍 개최 및 국내외 무역쇼에서 포도 산업에 대한 발표 확대, 테이스트 뉴욕 웰컴 센터(Taste NY Welcome Centers) 및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에서 콩코드 포도 쇼케이스 진행 등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욕주의 콩코드 포도 생산량은 전국 2위이며 이 지대를 따라 약 30,000 에이커 규모의 포도 농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8,000 에이커 이상의 대부분은 뉴욕주에 있습니다. 콩코드 품종은 포도 주스, 젤리, 마멀레이드, 와인 등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많은 제품의 제조에 사용됩니다.

### 아메리칸 팜랜드 트러스트(American Farmland Trust) 소개

아메리칸 팜랜드 트러스트(American Farmland Trust)는 농업에 대한 전일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유일한 국가 기관입니다. 아메리칸 팜랜드 트러스트는 토지 자체와 토지에 사용하는 농업 기술, 그리고 노동을 하는 농부 및 낙농업자에게 집중합니다. 아메리칸 팜랜드 트러스트(American Farmland Trust, AFT)는 보수적인 농업 운동을 시작하고 노팜스, 노 푸드(No Farms, No Food)라는 메시지를 통해 공공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1980년 설립 이래, 아메리칸 팜랜드 트러스트(American Farmland Trust, AFT)는 650만 에이커 규모의 농지를 영구 보호했고, 또 다른 수백만 에이커의 농지에 환경적으로 안정적인 농업 기술을 적용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수천 개의 가정을 지원했습니다. 뉴욕주 팜 투 인스티튜션(Farm to Institution New York State, FINYS)은 아메리칸 팜랜드 트러스트(American Farmland Trust)가 주도하는 협력 이니셔티브로 뉴욕 전역의 인스티튜션에 납품되는 지역 농산품의 양을 급격하게 늘렸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